

트럼프 “비핵화 진전...김정은과 만남 고대”

2차 북미정상회담 기대감 피력 펜스 “북한의 구체적 조치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뤄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길 고대한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거듭 피력했다. 그런 한편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같은 날 방송에 나와 북한을 향해 ‘구체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발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행정부의 1, 2인자가 각기 강-온 메시지를 발신하며 ‘역할분담’을 꾀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서

“이번 주에 (북한) 최고 대표자들과 아주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며 “2월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일행과 면담한 것을 일컫는 것으로, 그는 전날에도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매우 좋은 만남이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또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2차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그의 노력에 후한 점수를 매기지 않는 미 언론을 향해서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언론은 우리가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금과 비교할 때, 오바마 정부

말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북핵 위기 수위가 Barack 오바마 대통령 재직시절보다는 훨씬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도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비핵화에 관한 한 많은 진전을 이뤘다”, “엄청난 진전을 이뤘지만 불행하게도 보도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언론을 못마땅해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차 정상회담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진정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믿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대통령은 매우 낙관적”이라며 “내가 본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의사소통은 정말 놀랍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2차 회담에서는 북한이 김정은이 약속한 진정한 비핵화를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자극하는 표현을 삼갔지만 2차 회담에서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에둘러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16일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공관장 회의 연설에서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전망이 밝은 대화를 시작했지만, 우리는 우리 국민과 동맹들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해제하기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여전히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66> 원진

원진(元震, 779-831)의 자는 미지로 하남성 출신이다. 당 후기의 시인 겸 정치인으로 백거이와 함께 신악부(新樂府) 운동을 주도했다. 북위 선비족 탁발부 후예로 탁발 십익건의 14대 손이다. 일찍 부친을 여의고 모친을 따라 봉상 지역의 외숙에게 의지 하였다. 15세에 진사과에 합격했다. 21세에 하중부에 임명되고 22세에 산관장사랑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비서성 교서랑을 거쳐 806년 우승 유가 되었다. 그해 현종이 실시한 책시(策試)에서 백거이 등과 함께 출중한 실력으로 선발되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백거이와 평생의 친구가 되었다. 그는 현종에게 간관을 중시할 것을 건의하였다. “예전에 태종은 왕규와 위징을 간관으로 삼고 정사를 논의할 때만

로 추천하였다. 그는 번진과의 화해를 원하는 온건파였다. 배도는 하북 번진과의 전쟁을 종결하려는 환관 세력과 친밀한 그의 재상 임명안을 반대하는 상소를 세차례 올렸다. 목종은 원진을 공부시랑으로 삼았다. 비록 한림에서 해직되었지만 은총과 대우는 전과 같았다.

822년 재상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하북에서 군대를 철수 시키고 배도의 병권을 박탈할 것을 주장하였다. 조정 대신들이 배도를 내치는 것에 반발하였다. 결국 배도를 재상으로 임명해 함께 정사를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둘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우방이라는 자가 원진의 사주를 받아 배도를 해치려 한다”는 투서가 조정에 올라왔다. 조사 결과 배도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로 확인되었다. 목종은 그를 동주자사로 좌천시켰다. 이후 월주자사와 절동관찰

시인·정치인, 백거이와 시가 혁신 주도

드시 참여시켜 득실을 헤아리도록 해 천하가 잘 다스려졌습니다.” 또한 바른 인사를 기용해 황자들 잘 교육토록 권하였다. 809년에는 감찰어사가 되었지만 실제 환관 유사원의 비위를 건드려 호북성 강릉부 사조참군으로 좌천되었다. 형주에서 5년 가까이 지내면서 시 창작에 몰두해 거의 300여 수의 작품을 지었다. 초가십수(楚歌十首)가 대표작이다. 하루는 부수역이라는 역참에서 목격되었다. 환관 유사원 일행도 부수역에 유숙하게 되어 제일 큰 방을 원하였다. 역리는 이미 묵고 있는 분이 있다고 다른 방을 권했다. 유사원은 크게 화를 내며 원진이 묵은 방문을 견어차며 방안으로 난입해 욕설을 퍼붓고 채찍으로 뺨을 내리쳤다. 결국 원진은 초주검이 되어 장안으로 돌아왔다. 조정 대신들은 유사원을 처벌해 줄 것을 황제에게 상소하였다. 그러나 현종은 오히려 원진을 강릉으로 좌천시켰다.

10년에 걸친 지방 생활은 원진의 성격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세상을 구하겠다는 순수한 뜻을 접고 출세 지상주의자가 되었다. 819년 장안으로 돌아와 선부원의랑이 되었다. 지방 근무시 친해진 환관 최담준과 위홍간과 힘을 합쳤다. 목종 원년(821년) 고부낭중 겸 지제고로 승진하고 한림학사, 중서 사인이 되었다. 위홍간이 그를 재상으

사로 거쳐 829년 상서좌승이 되었다. 831년 호북성 무창절도사로 재임중 53세로 병사하였다.

원진은 일찍부터 문재를 과시해 원재자(元才子)로 불리었다. 백거이와 함께 원백(元白)으로 호칭되었다. 백거이와 신악부 운동을 주도해 시가 혁신을 이끌었다. 그러나 문학적 재능은 백거이에 미치지 못하고 환관과 결탁하는 등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평판이 좋지 않았다. 남진 시중에는 풍자시가 가장 많다. 장편 서사시 연황궁사(連昌宮詞)는 궁녀들의 대화 방식을 통해 당 현종의 사치와 황음을 고발한 내용으로 묘사가 세밀하고 구성이 치밀해 백거이의 장한가와 비교된다. 신악부는 당나라 문인들이 새롭게 제목을 붙여 창작한 악부시로 시성 두보에 이르러 크게 발전하였다. 한유와 유충원의 고문 부흥운동과 백거이, 원진의 신악부 운동이 당 후기에 크게 호응을 받았다. 신악부 운동은 중국 시가 사상 중요한 혁신의 하나로 자리잡아 후세 시가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여성 시인 설도와의 리브스토리도 유명하다. 감찰 어사로 성도에 왔을 때 만나 사랑에 빠졌다. 몇 년 후 헤어지고 설도가 사랑의 시 100수를 써서 보냈는데 이에 답한 시가 유명한 기증설도(寄贈薛濤)다.

북미 실무진 스웨덴서 합숙 담판... ‘비핵화·상응조치’ 집중 조율

1차 정상회담 합의 이행 논의 한국 대표단 참석 3자 대면도

미국과 북한은 20일(이하 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이틀째 실무협상을 벌였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까지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휴양시설인 ‘하크홀름스톤 콘퍼런스’에서 이틀째 두문불출한 채 합숙 담판을 벌였다.

스웨덴 측이 주최한 국제회의에 참가하

는 형식으로 만난 북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도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 형식으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이후 북미 대표단은 별도의 양자 회동을 통해 양측이 내달 말께로 합의한 2차 정상회담 의제와 로지스틱스(실행계획)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양측은 완전한 비핵화,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주요 내용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놓고 의견을 개진하며 조율했을 것

로 관측된다. 특히 양측은 지난 1차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입장차를 보여 지난 8개월간 2차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란을 벌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미국은 양자 협상뿐만 아니라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자 회동을 통해 입장차를 좁히는 방식으로도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미 3자는 스웨덴이 주최한 공식 미팅에서 접촉했으며,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관련 논의 등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자리에서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백악관 면담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낼 것으로 낙관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맞선 일부 민감 사안에 대해 한국 대표단이 어떻게 접근을 모색했는지 한국의 중재자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과 미국은 일단 오는 21일까지 이번 실무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나 협상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트럼프 빅딜 카드 민주 거부 멋졌다운 한달째 대치 격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장벽건설 예산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20일(현지시간)로 한 달째(30일)를 맞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야당인 민주당의 첨예한 대치가 계속되면서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장벽건설 예산 57억 달러 반영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 푼도 배정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서면서 미중 무역협상과 북핵 협상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갯속 정국이 계속되는 것이다. 셧다운은 기존 최장 기록이었던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1995년 말~1996년 초)의 21일을 이미 넘기는 것은 물론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셧다운 사태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에 타협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北 삼지연관현악단 베이징 도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 이후 북중 교류와 활기를 띠는 가운데 삼지연 관현악단이 19일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공항에는 무대 장비와 악기를 실는 화물차와 지난 15일 먼저 베이징에 도착한 김순호 북한 삼지연악단 행정부 부단장도 모습이 포착됐다. /연합뉴스

여수에서 사고 좋은 땅 - 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343-1번지외 2필지, 대지 431평 (343-1-260평, 343-2-141평, 344-30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90%, 준주거지역-10%,
- 대출-18억7500만원, 시세/감정가-약 35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가 - 33억. 일시불 조정가 문의 - 010.3605.5000

